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75호
2020.9.21

정책동향

- | 초과 유보소득 과세, 건설업 피해 불가피
- | 국난 극복 SOC 예산... 5조원 이상 증액해야

시장동향

- |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산업정보

- | 2020년 2/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건설논단

- | 해외건설, 어렵지만 해야 할 숙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초과 유보소득 과세, 건설업 피해 불가피

- 건설업 특성 고려하지 않은 과세 신설, 법안 철회 혹은 건설업종은 제외해야 -

■ 기획재정부,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신설

- 지난 7월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특별제한법」 신설 법안이 포함됨.
 -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금융 세제 개선, 신탁 세제 개선, 주택 관련 세제 강화,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강화 등 기존의 세법 체계를 변화시키는 많은 사항을 포함함.
 - 특히,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 회피 등을 방지’하고자 신설 법안을 도입하였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임.
-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임.
 - 유보소득이란 법인이 경상·비경상적 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 중 기업 내에 잔류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득을 말하며, 적정 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이월결손금, 세금 등을 공제한 소득 즉, 총배당 가능 금액의 50% 혹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 중 큰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보다 큰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은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임.

■ 다수 중견·중소건설기업이 과세 대상, 건설산업 파장 클 듯

- 건설산업은 공공을 상대로 한 영업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업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1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공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고,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많은 건설 및 주택 건설기업의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는 낙찰자를 시공 경

험과 경영상태 등이 포함된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로 인해 신용평가등급을 책정하기 어려워 재무비율로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많음.

- 중소 건설기업 다수가 더 좋은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얻기 위하여 유보금을 쌓아두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이번 제도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과중한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임.
- 이와 함께 건설업의 경우 과세 신설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수의 대형 건설기업과 중견 건설기업들이 유보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유사 개인 법인의 탈세 목적을 막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많은 비상장 건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들이 과세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사업체의 형태로 보면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법인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음. 건설업의 특성상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인 전환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보소득세 과세는 기존 정책에 배치되고, 불합리함.

■ 제도 철회 혹은 건설업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음. 그럼에도 지금까지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내 유보금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임. 따라서,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획재정부는 이미 과세 신설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를 고려하더라도, 건설업과 같이 다수의 대형,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 프로세스, 사업 기간 등 건설업의 특성상 사내 유보금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적정 유보소득을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해석을 폭 넓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향후 기업 조세정책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음.

김영덕(선임연구위원 · ydkim@cerik.re.kr)

국난 극복 SOC 예산... 5조원 이상 증액해야

- 건설의 산업연관 효과를 활용한 선제적인 재정 투자 필요 -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역대급 장마 등, 국가 재난 심각

-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올해 1월 20일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 2만 7,310명, 사망자 367명에 달하며, 최근 수도권 확산세로 피해가 더욱 커진 상황임.¹⁾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자영업자, 영세기업 등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심각함.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 집중호우 재산 피해액을 역대 다섯 번째로 큰 1조 371억원으로 산정하고 복구비로 3조 4,277억원 필요하다고 발표함.
 - 결국, 이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2020년 국내 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3% 전망하였으며, KDI도 -1.1%로 전망함.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연말까지 지속시, 건설투자 5.1조원 추가 감소 전망

-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건설투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전망을 사용함.
 - 한국은행의 기본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건설투자를 전망하면 2020년 260.8조원(-0.8%), 2021년 259.8조원(-0.4%)으로 2020~2021년간 총 3.1조원 감소가 예상됨.
 - 비관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건설투자를 전망하면 2020년 259조원(-1.5%), 2021년 256.8조원(-1.5%)으로 2020~2021년간 총 7.9조원 감소가 예상됨.

<표 1>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 변화 시나리오 전망

구분	기본 시나리오 :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기간 연초와 비슷하게 지속, 이후 간헐적 국지적 확산		비관 시나리오 :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기간 연말까지 지속	
	2020년e	2021년e	2020년e	2021년e
GDP 성장률 (%)	-1.3	2.8	-2.2	1.2
건설투자 (조원)	260.8	259.8	259.0	256.8
전년 대비 증감액 (조원)	-2.1	-1.0	-3.9	-4.0
전년 대비 증감률 (%)	-0.8	-0.4	-1.5	-1.5

주 : GDP 성장률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 증감률 변화는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4.21)의 분석모형 GDP 성장률 증감률 계수 0.7339로 계산함.²⁾

자료 : 한국은행(2020.08.27), 「경제전망(2020.8월) 보도자료」 14p.

1) 2020. 9. 14일 0시 기준, 한때 확진자는 441명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최근 100명대로 완화됨. 단, 13일 연속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2) 다른 변수들은 변화가 없고 GDP 성장률만 변한 것만을 감안한 수치로 실질금리 등 다른 변수의 변화는 감안하지 않은 수치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2018년 실질금액 기준³⁾으로 2020~2021년간 3.4조~8.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금년 겨울까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와 내년 건설투자가 각각 1.9조원, 3.2조원 추가 감소해 총 5.1조원이 추가로 감소할 전망이다.

<표 2>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규모 추정치

(단위 : 2018년 가격 기준, 십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기본 시나리오	-2,275.5	-1,080.0	-3,355.6
비관 시나리오	-4,177.0	-4,273.4	-8,450.4
차이	-1,901.5	-3,193.3	-5,094.8

주 : 2018년 금액 기준은 한국은행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 건설투자 감소는 전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 특히 서민 일자리 축소에 큰 타격

-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추정되는 건설투자 감소 규모인 3.4조~8.5조원에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⁴⁾를 곱해 건설투자 축소가 전 산업에 미칠 직·간접 생산액 감소 규모를 추정하면, 최소 6.7조원에서 최대 16.7조원의 산업 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0~2021년 건설투자 축소로 취업자는 약 3.8만~9.6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상용근무자보다는 비상용 근무자, 즉 사회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

<표 3>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으로 발생하는 산업별 생산 감소액

(단위 : 조원)

구분	건설투자 생산유발계수	생산 감소액		
		기본 시나리오 (a)	비관 시나리오 (b)	차이 (b-a)
건설	1.002	3.36	8.47	5.11
타산업	1.000	3.36	8.47	5.10
합계	2.02	6.73	16.94	10.21

<표 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으로 발생하는 취업자 감소

(단위 : 천명)

구분	합계	상용 근무자	비상용 근무자			
			임시·일용	자영·무급		
건설 취업유발계수	11.41	5.26	6.15	3.61	2.54	
취업자 감소	기본 시나리오	38.3	17.6	20.6	12.1	8.5
	비관 시나리오	96.4	44.4	52.0	30.5	21.5
	차이	58.1	26.8	31.3	18.4	13.0

주 : 2018년도 금액 기준으로 추정함. ; 자료 :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2015년 기준 연장표 기준)".

3) 2018년 실질금액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되는 2018년 산업연관표 분석을 위함임. 해당 금액을 2020년도 금액으로 전환시 3.3조~8.2조원임.

4)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 효과의 크기를 합산한 값임.

■ 국가 재난 극복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 필요, 내년 SOC 예산 5조원 이상 증액해야

- 해외 주요국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함.
 - 미국은 4차례 긴급재정으로 ‘긴급구호’ 식으로 대응하다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기조를 전환함. 7월에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구체화했으며 최근 인프라 재건 법안 「Moving Forward Act」(1.5조 달러)가 의회를 통과함.
 - 중국은 경기회복에 많은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재정적자율과 인프라 투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함(중앙정부 224억 위안, 지방정부 특별채 1.6조 위안 증액).
- 우리나라도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본적 지출 중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함.
 - 건설 부문에서 파급되는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침체를 최소화하여,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위축에 대비해야 함.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빈번한 태풍 등 풍수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재해재난시설 확충과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 등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전략적 투자도 필요함.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SOC 예산은 2020년 대비 5조원 이상 증액한 28조원 수준이 되어야 함.
 -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금년 겨울까지 지속되면 건설투자가 추가로 1.9조원 감소하고, 2021년에 3.2조원이 추가 감소해 총 5.1조원의 건설투자가 축소가 예상됨. 코로나19 확산세가 옮겨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년에 다시 재확산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8조원 증액된 26.0조원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명목 금액으로는 최대금액이지만 실질금액(201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7조원 수준에 불과함.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 당시 편성된 SOC 예산(27.7조~28.4조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그림 1> SOC 예산 명목 금액



<그림 2> SOC 예산 실질금액(2015년 기준)



주 : 실질가격은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사용, 2020~2021년은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사용.
 자료 : 기획재정부 각년호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 노후 건물 확대에 따른 수리·수선 수요 증가,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 의식도 개선돼 -

2020년 국내 리모델링 규모는 30조원, 2025년 37조원, 2030년 44조원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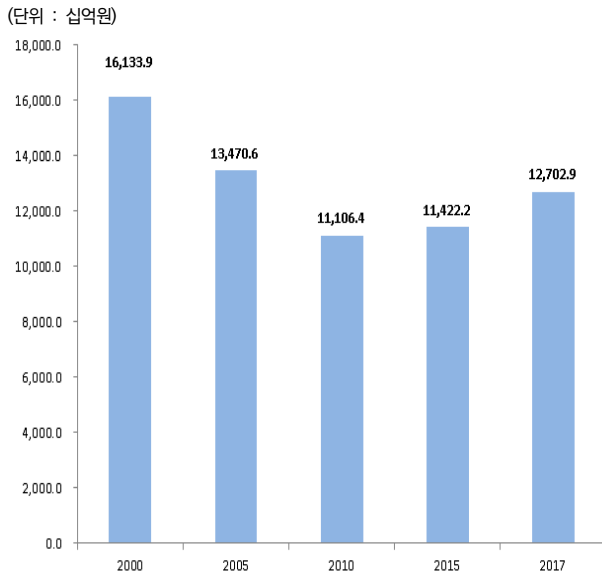
- 2000~2017년간의 건축물 시장은 실질적으로 신축 시장이 주도함. 건축물 유지·보수시장은 지난 17년간 역성장 및 저성장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 큼.
 - 1990~2010년에 신축된 건물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지만 당장 재건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개수)을 앞두고 있지는 않음.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건축과 전면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건물의 장수명화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필수 기계 및 설비를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수선 등을 실시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2~2019년간의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불규칙한 성장 추이를 보였지만,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017~2019년간 신축 착공면적이 이전 3년(2014~2016년)보다 16.2% 감소했음. 반면 리모델링 착공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17.7% 증가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징후가 뚜렷이 나타남.
 - 2018년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의 37.1%를 차지함. 이 재고는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음.
 - 리모델링 기술의 발전,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 의식의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예상됨.

<표 1> 건축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 전망(2015년 기준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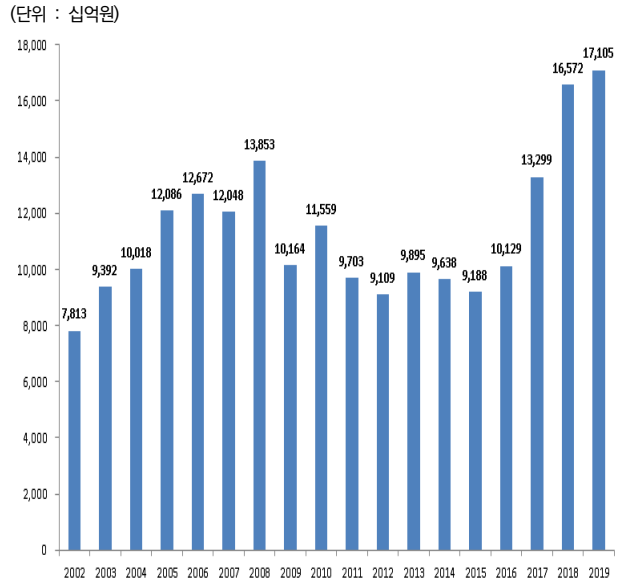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20~2030 연평균 성장률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	12,795 (42.5)	13,759 (37.1)	14,723 (33.4)	1.4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17,293 (57.5)	23,321 (62.9)	29,350 (66.6)	5.4
합계	30,088 (100.0)	37,080 (100.0)	44,073 (100.0)	3.8

<그림 1>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 규모 추정(2015년 실질기준)



<그림 2>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정(2015년 실질기준)



■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 필요

● ① 건축물 리모델링시 주차장 규제 완화 필요

- 용도변경 추진시 주차대수 규제가 낮은 수준(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에서 높은 수준(일반업무시설 100㎡당 1대)으로 변경될 경우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 ②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라 리모델링 추가 비용 발생 불가피, 관련 인센티브 확대 필요

- 2층 이상 및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내진설계가 의무화됨. 건축물 리모델링 시행시 내진 보강을 필수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 보전,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③ 에너지 고효율화 등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추진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단열재 교체, 태양광 설치, LED 조명설치 등)에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에너지 고효율화 리모델링시 건축·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함.

● ④ 주거복지적 시각에서 주택 리모델링 접근 필요

-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단독주택지,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이 밀집된 도시 저개발 지역의 경우 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 사례가 많지 않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저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개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등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2020년 2/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 감소했으나 수익성은 양호 -

■ 2020년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증가율 마이너스 전환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성장성 지표인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이 2/4분기에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됨(<표 1> 참조).
 - 2020년 2/4분기 매출액증가율은 -3.16%로 지난 1/4분기 1.06%보다 4.22%p 하락하며 마이너스 (-)로 전환됨. 매출액증가율은 2019년 2/4분기 -7.1%, 3/4분기 -4.9%, 4/4분기 3.2%로 점차 개선됐으나 2020년 2/4분기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업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2020년 2/4분기 전 산업과 제조업, 비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 역시 각각 -10.11%, -12.70%, -6.47%로 모두 1/4분기보다 하락함.
- 또 다른 성장성 지표인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1.70%로 2019년 2/4분기 0.78%보다 0.92%p 상승함.
 - 총자산증가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건설업 수익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며 양호

-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9년 2/4분기보다 다소 상승하며 양호한 수치를 보임.
 - 2020년 2/4분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6.64%로 2019년 2/4분기 5.82%보다 0.82%p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66%로 2019년 2/4분기 5.92%보다 0.74%p 상승함.
-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이자보상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이자보상비율 $[(\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times 100]$ 은 685.07%로 2019년 2/4분기 592.05%보다 93.02%p 상승함.
 - 이자보상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2019년 2/4분기 4.40%, 3/4분기 4.19%, 4/4분기 4.39%로 4%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1/4분기 3.79%로 하락한 이후 2020년 2/4분기에 다소 상승하여 3.91%를 기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의 수익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수익성은 제조업의 수익성보다 양호한 상황임.
-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은 전년 동기보다 다소 하락함.
 - 2020년 2/4분기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은 0.88%로 2019년 2/4분기 0.95%보다 0.07%p 하락함.

■ 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은 하락했으나 차입금의존도는 비슷

- 올해 1/4분기에 2019년 4/4분기 대비 증가했던 건설업 부채비율은 2020년 2/4분기에 다시 하락하며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부채비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 1/4분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 2/4분기에 119.24%로 2020년 1/4분기 123.27%보다 4.03%p 하락함.
 - 2020년 2/4분기 차입금의존도는 21.81%로 2020년 1/4분기 21.79%와 비슷함.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에 꾸준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 1/4분기에 상승세로 돌아선 바 있음.
- 다만, 차입금대 매출액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매출액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차입금대 매출액비율은 2019년 2/4분기 19.43%였으나 2020년 2/4분기 24.86%로 5.43%p 상승함.

<표 1> 주요 경영지표

구분	성장성 (%)	수익성 (%)			안정성 (%)	활동성 (회)	구분	성장성 (%)	안정성 (%)		
		총자산 증가율 ¹⁾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보 상비율	차입금 대 매출액 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증가율 ²⁾	부채 비율
건설업	2019 2/4	0.78	5.82	5.92	592.05	19.43	0.95	2020 1/4	1.06	123.27	21.79
	2020 2/4	1.70	6.64	6.66	685.07	24.86	0.88	2020 2/4	-3.16	119.24	21.81
제조업	2019 2/4	0.26	6.05	5.72	675.58	23.80	0.84	2020 1/4	-1.85	67.76	21.31
	2020 2/4	1.12	5.01	5.29	573.15	30.03	0.72	2020 2/4	-12.70	67.42	21.74
비 제조업	2019 2/4	0.15	4.43	5.16	350.43	36.41	0.8	2020 1/4	-1.88	125.69	30.7
	2020 2/4	1.07	5.43	5.33	347.35	41.43	0.74	2020 2/4	-6.47	122.25	30.88
전산업	2019 2/4	0.21	5.38	5.49	495.89	29.12	0.82	2020 1/4	-1.86	88.23	25.28
	2020 2/4	1.10	5.19	5.31	446.95	34.96	0.73	2020 2/4	-10.11	86.95	25.61

주 : 1) 전기 말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은행(2020.9.15), 2020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속보).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해외건설, 어렵지만 해야 할 숙제

과거의 영광이 온데간데없다. 한 해에만 700억 달러가 넘기도 하고 연평균 65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주 산업으로 평가되던 해외건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016년 282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수주 실적은 3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도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쪼그라든 실적의 원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근원적인 기술력은 키우지 않고 실적 쌓기에만 매몰된 결과라며 비판한다. 또한, 일부 시장과 상품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 맞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 대답을 듣기가 어렵다. 왜일까? 그만큼 해외건설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무기로 꾸준한 수주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의 난이도는 국내건설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주 환경은 국내에서보다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리하기 어려운 외부 위험 요인도 많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발주자의 기대 수준도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외건설 수주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완성도 높은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본연의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한 5개년 단위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시장 진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인력·기술 등 부문별 지원 방안들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비록 지원 방안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하고 방안에 대한 체감도 차이로 인해 효율성 지적도 많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은 수주 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의 뒷받침과 함께 필요한 것은 해외건설 시장이라는 경기에 출전하는 개별 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 보유는 진출할 시장과 건설할 상품을 선택하는 기업의 몫으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수많은 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 변화와 경쟁 기업 증가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로 무장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1965년 해외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거둔 8,500억 달러가 넘는 수주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임과 동시에 우리의 해외건설 경쟁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부인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지난 55년의 진출 역사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지금의 어려움도 그와 다르지 않다. 해외건설은 어렵지만 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잊지 말자. <국민일보, 2020.9.1>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